

보도 일시	2022. 12. 23.(금) 12:00	배포 일시	2022. 12. 22.(목) 15:00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책임자	실 장 김 진 (042-366-7101)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 한국인의 행복수준, 지난 25년간 주거 특성 변화 등 -

-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심층 분석하는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를 발간하였다.
- 이슈분석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수준과 행복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에서는 주요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의 행복수준, 행복 불평등 수준 및 행복 취약계층을 살펴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정책학 박사))
 -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낮고 행복 불평등 수준도 높았으며, 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 불만족 및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행복 취약계층으로 파악되었다.
 -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5~2020년 동안의 주거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개발원 현대환 주무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교육학 박사))
 - 지난 25년간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자가 점유율은 거의 정체된 상태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은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분석하였다.
- 통계프리즘에서는 「국민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및 「코로나19가 중소 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 「국민 암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태」에서는 2021년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김병미 부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오진경 교수)

- 국민 약 80%가 암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한 실천율은 약 40%에 머물러 예방수칙 실천률 제고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집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에서는 가계 동향조사 결과로 본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손경국 사무관, 이봉희 사무관)

- 전년대비 가구당 월평균소비지출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감소 및 증가 하였으며, 대면소비 지출은 감소 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에서는 중소기업기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청 오정화 사무관(現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창용 팀장)

- 2019년에 존재한 중소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며, 특히 방역조치 대상 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SRI 리서치노트에는 「데이터경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수록하였다.

- 데이터경제의 정의, 데이터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보고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다.(통계개발원 변준석 사무관)

- 또한, 데이터경제 측정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경제를 핵심·협의·광의로 구분하고, 데이터 활용단계(단순, 일상화, 지능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단계(디지털화, 디지털 일상화, 디지털전환)를 각각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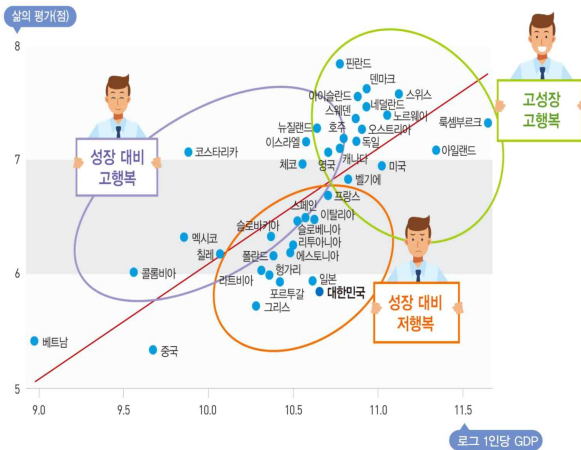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및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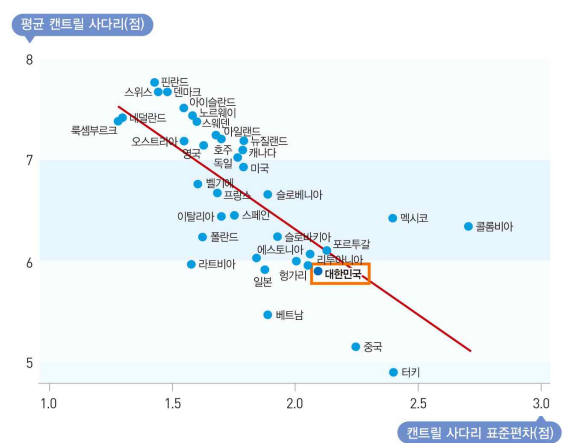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정책학 박사)

- 경제성장 수준과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함
-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행복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국의 경제적 성과 대비 행복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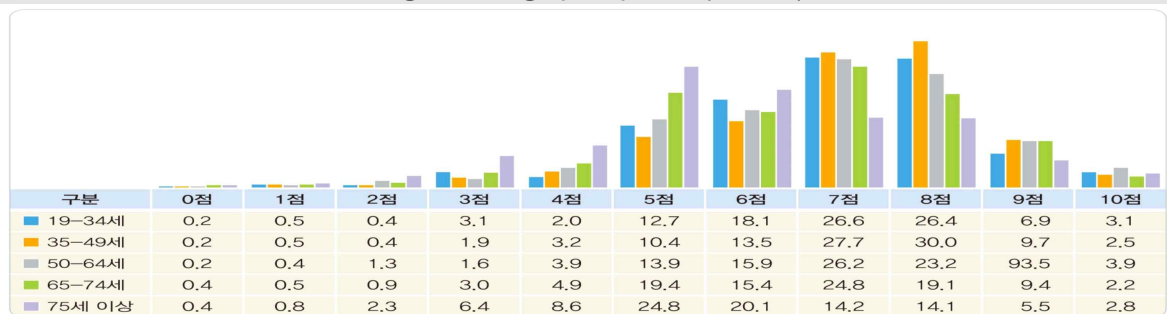


<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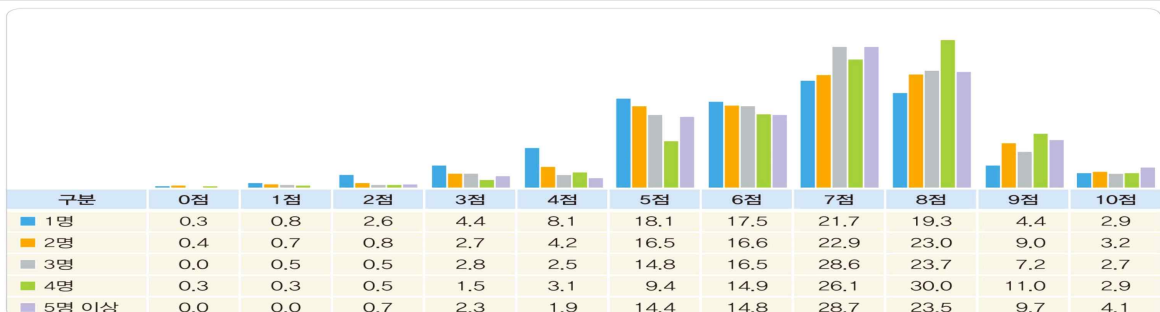


- 주요집단별 행복 점수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덜 행복한 행복 취약계층을 확인
-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집단이 행복 취약계층이며,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행복의 관계에서 취약한 집단임

< 연령집단별 행복 점수 분포(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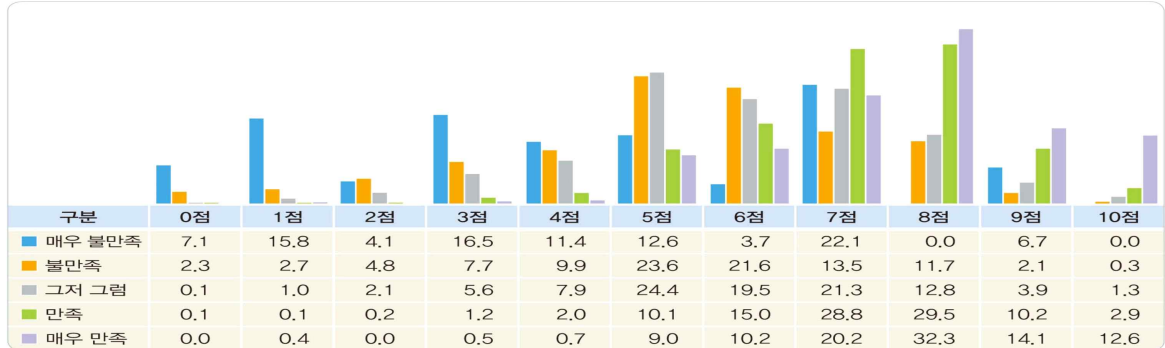


< 가구원수별 행복 점수 분포(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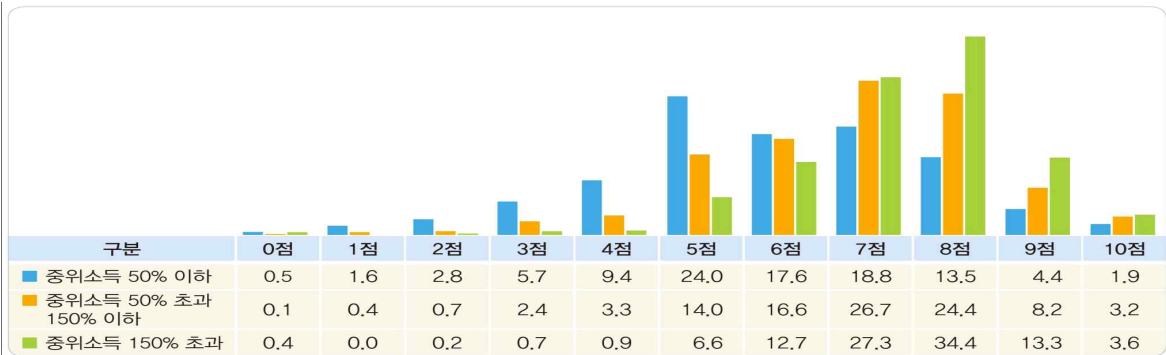


- 사회적 관계 만족 수준과 가구 경제상황에 따른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과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복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임

< 사회적 관계 만족과 행복 점수 분포(2020년) >



< 가구 경제상황에 따른 행복 점수 분포(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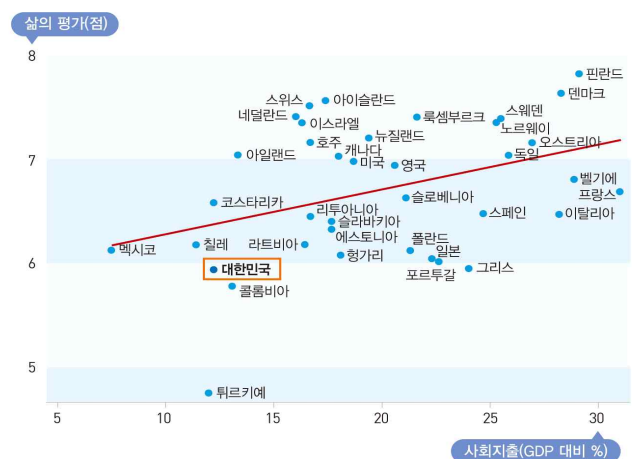


< 복지국가와 행복 >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 수준과 복지국가 수준이 낮은 편임

* 복지국가 수준(사회지출 규모)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수준 높은 경향

- 한국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행복 취약 계층에 적극적인 복지국가 역할 필요



-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행복 취약 계층에 관한 통계 구축 등이 요구되며,

- 향후에는 정주 여건, 일자리의 양과 질 등 구체적인 삶의 면면에 따른 행복 취약계층을 탐색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적 필요

※ 본 분석은 통계개발원이 수행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20년)」 연구의 일부를 발췌·재구성

현대환, 통계개발원 주무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교육학 박사)

- 인구·주택총조사(전수 및 표본자료)를 이용한 장기 시계열(1995~2020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집의 변화를 분석
- 지난 25년(1995~2020년) 동안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변화는 주택(93.6%), 가구(61.5%), 인구(16.2%)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에도 동일 순 - 단, 최근(2019~2020년, 2020~2021년)에는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더 많이 증가

< 인구·가구·주택수와 증가율(1995~2020년) >

(단위: 천 명, 천 가구, 천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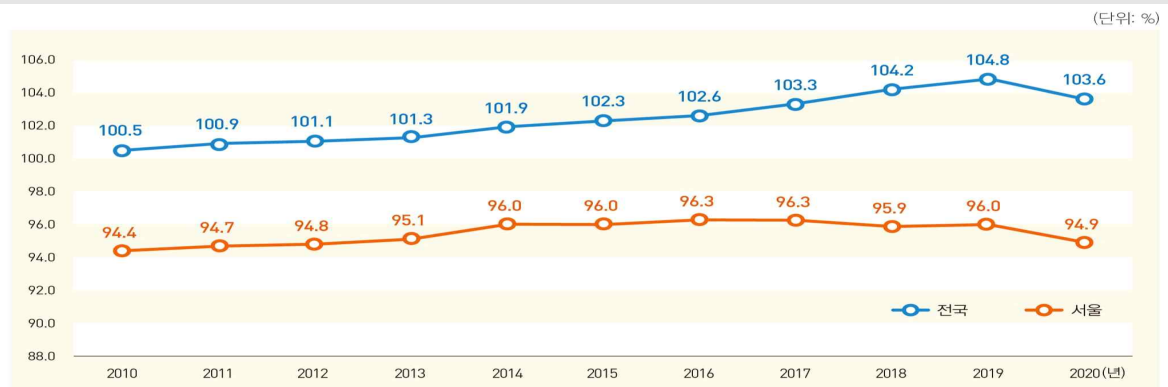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995~2020년 증감
인구	총인구	44,609	46,136	47,279	48,580	51,069	7,220
	증가율	2.8	3.4	2.5	2.8	5.1	16.2
가구	일반가구수	12,958	14,312	15,887	17,339	19,112	7,969
	증가율	14.1	10.4	11.0	9.1	10.2	61.5
주택	주택수	9,570	11,472	13,223	14,677	16,367	8,956
	증가율	30.1	19.9	15.3	11.0	11.5	93.6

주 : 주택 수에는 빈집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2020년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주택보급률이 감소(104.8%→103.6%)

< 전국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2010~2020년) >



자료: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KOSIS.

- 지난 25년(1995~2020년)간 자가 점유율은 55%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전세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2020년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월세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15~2020년에는 변화가 거의 없음

<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1995~2020년) >

(단위: 천 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자가	6,910	53.3	7,753	54.2	8,828	55.6	9,390	54.2	10,850	56.8	11,989	57.3
전세	3,845	29.7	4,040	28.2	3,557	22.4	3,766	21.7	2,961	15.5	3,252	15.5
월세	1,875	14.5	2,113	14.8	3,012	19.0	3,720	21.5	4,529	23.7	4,905	23.4
무상	328	2.5	406	2.8	490	3.1	464	2.7	773	4.0	781	3.7
전체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2	100.0	20,927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15~2020년).

- 주거빈곤 가구 규모는 2005년 305만 가구에서 2020년 176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주택 이외의 거처는 꾸준히 증가
 - ※ 본 분석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비롯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포함하여 주거빈곤 가구 규모를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빈곤 가구 추이(1995~2020년) >

(단위: 천 가구, %,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5,892	4,071	2,536	2,029	1,561	970
		46.3	28.7	16.1	11.8	8.2	4.6
	인구	18,010	11,400	6,646	4,998	3,827	2,209
		43.2	26.1	14.8	10.8	8.0	4.5
주택이외의 거처		42	63	57	129	391	448
		0.3	0.4	0.4	0.7	2.1	2.1
주거빈곤		5,934	4,134	3,046	2,556	2,277	1,758
		46.6	29.2	19.3	14.8	12.0	8.4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산정시 총 방수는 침실수에 방으로 사용 가능한 거실과 식당방을 더한 방수로 정의함.

2) 6인 이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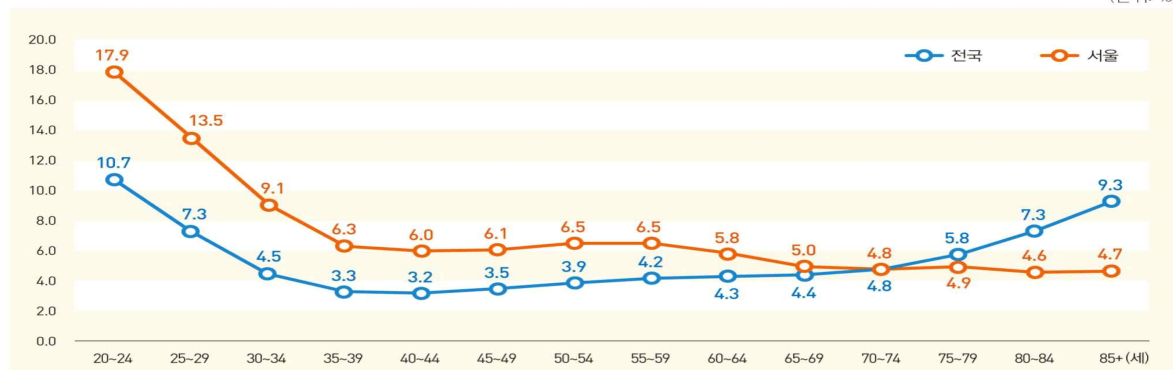
3) 1995~2000년에는 거주층이 조사되지 않아 주거빈곤가구에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199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2015~2020년).

-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서울과 전국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전국은 '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서울은 'L자' 형태를 보임

< 전국 및 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2020년) >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2020년).

김병미,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부장(보건학 박사)
오진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보건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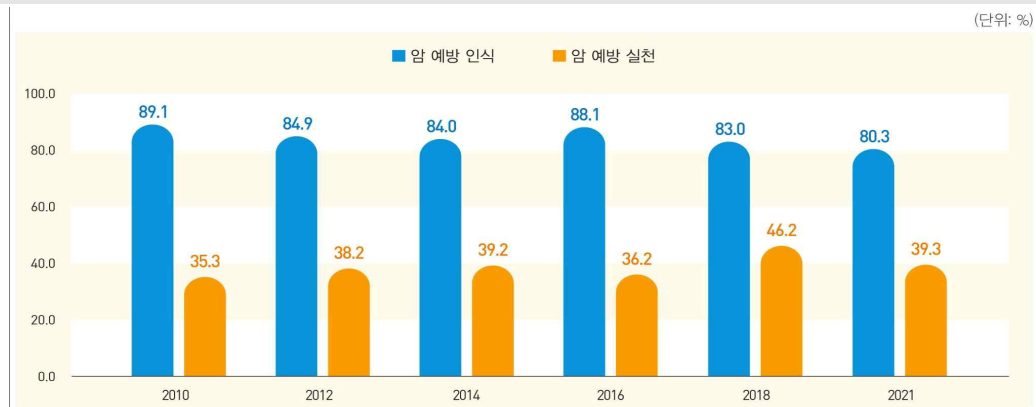
-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도 예방이 가능함을 알리자는 취지로,
 -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10대 암 예방 수칙’을 제정(2006년)
 - 국민들이 암 예방수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실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2~3년마다 ‘국민 암 예방수칙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

< 국민 암 예방 수칙 >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암 예방수칙을 잘 알고 있으나, 실천율은 약 40% 수준

< 암 예방 수칙 인식 및 실천율 >



- 암 예방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57.7%가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를 선택

< 암 예방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1+2+3순위) >



손경국,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사무관
이봉희,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 코로나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 2020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2.3% 감소
 - 비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 대면소비 비목에서 주로 감소폭이 큰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에서는 증가
 -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된 2021년의 가구당 월평균소비지출은 전년대비 3.9% 증가 하였으며, 2020년에 위축되었던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에서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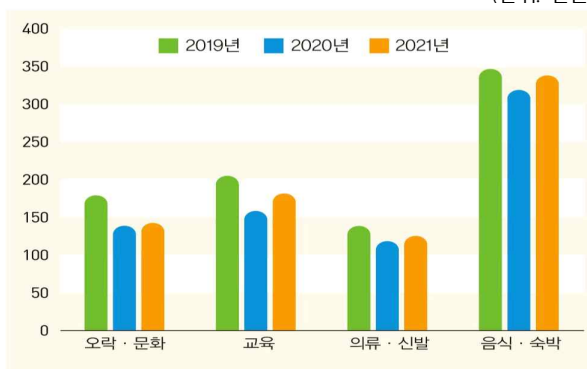
< 2019~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단위: 천원, %)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비지출	2,457	2,400	-2.3%	2,495	3.9%
식료품·비주류음료	333	381	14.6%	397	4.2%
주류·담배	36	38	4.8%	39	4.0%
의류·신발	138	118	-14.5%	126	6.5%
주거·수도·광열	277	286	3.3%	298	4.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5	127	9.9%	130	2.6%
보건	202	221	9.0%	226	2.7%
교통	296	289	-2.4%	287	-0.7%
통신	123	120	-2.6%	124	3.4%
오락·문화	180	140	-22.6%	143	2.2%
교육	205	159	-22.3%	182	14.1%
음식·숙박	346	319	-7.7%	338	5.8%
기타상품·서비스	206	204	-1.1%	2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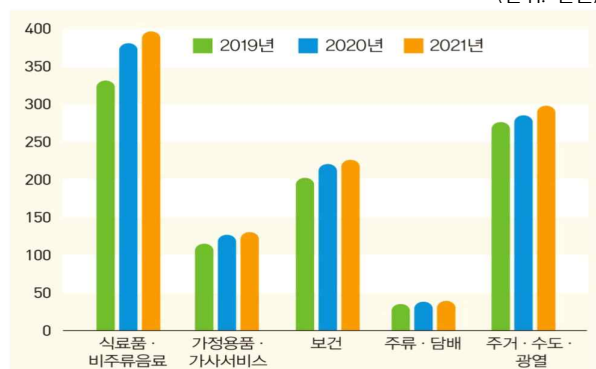
< 2019~2021년 소비지출 주요 감소 비목 >

(단위: 천원)



< 2019~2021년 소비지출 주요 증가 비목 >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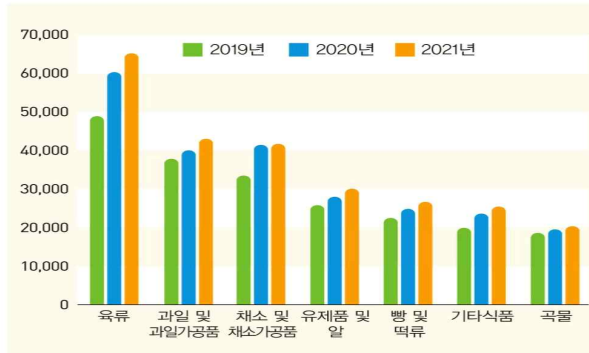


주: 2019년 대비 2020년의 지출액의 감소율(증가율)이 큰 순서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른바 ‘홈코노미(homeconomy)’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대비 14.6% 및 4.2% 증가하였으며, 주로 육류, 과일, 채소 등의 증가폭이 컸으며 밀키트 등이 포함된 기타식품도 증가
 - 소주, 맥주 등의 주류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대비 13.7% 및 1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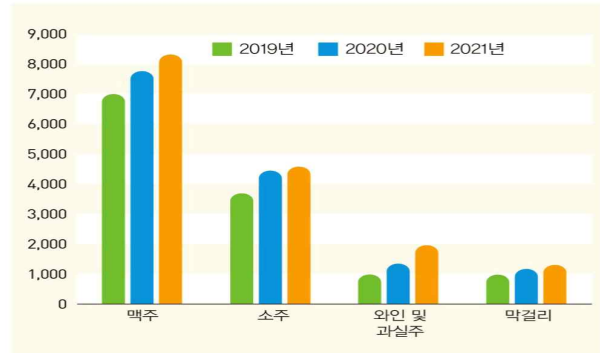
< 식품·비(非)주류음료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 >

(단위: 천원)



< 주류 소비지출 주요 증가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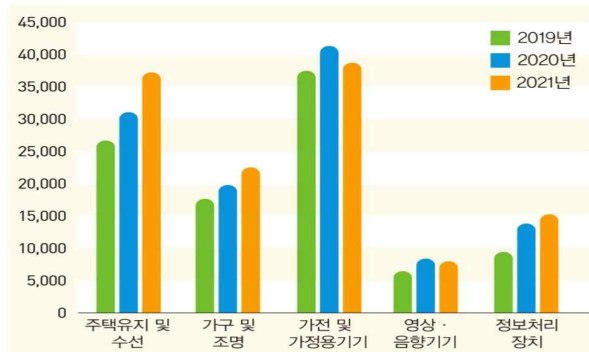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거주공간을 고치고 꾸미는데 드는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주택 유지 및 수선 지출은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16.1%, 19.8% 증가
-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극장 등 문화서비스 소비가 대부분 위축되었지만, 실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소비는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16.3%, 9.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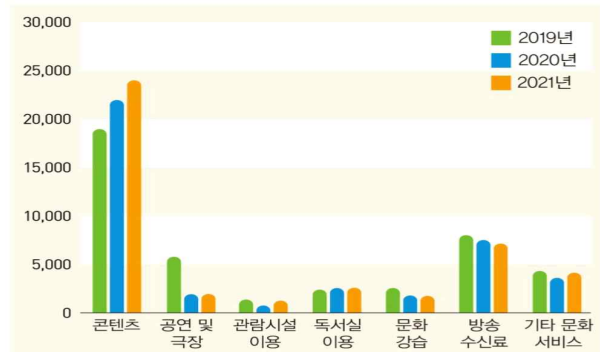
< 홈코노미 관련 소비지출 증가 품목 >

(단위: 천원)



< 오락·문화 중 문화서비스 지출 구성항목 현황 >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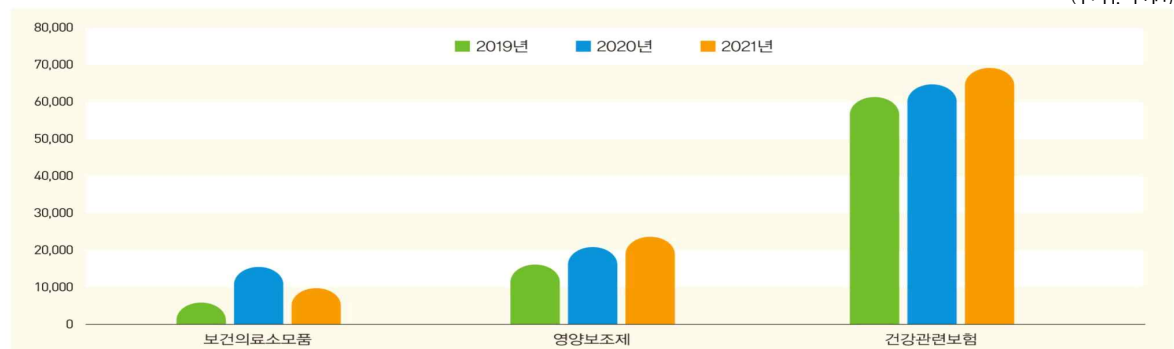


주: 주택유지 및 수선은 12대 비목 중 '주거·광열수도', 가구 및 조명과 가전 및 가전용기기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영상음향기기와 정보처리장치는 '오락·문화'에 각각 속함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음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에 따른 보건의료소모품 지출이 2020년에 166.5% 증가하였으며, 개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제 등의 소비가 늘면서 의약품 지출이 증가

< 건강 관련 항목들의 소비지출 추이 >

(단위: 천원)



주: 보건의료소모품과 영양보조제는 소비지출 12대 비목 중 '보건' 내에서 각각 '의료용소모품'과 '의약품'에 속하고, 건강관련보험은 '기타상품·서비스' 내에서 '보험'에 속함

오정화, 통계청 사무관(現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통계분석팀 팀장(경제학 박사)

-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를 활용하여 2019년에 존재한 기업에 2020년 기업정보를 연결한 후 분석
- 2019년 중소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며, 특히 예술·스포츠·여가(-18.1%), 숙박·음식점(-14.6%), 교육서비스(-12.5%) 등에서 크게 감소

< 산업별 중소기업 매출액 >

(단위: 개, 억원, %)

2019년 존재기업		매출액		
산업	기업수	'19년	'20년	전년대비증감
예술·스포츠·여가	145,326	178,477	146,144	-18.1
숙박·음식점	816,184	1,311,443	1,119,755	-14.6
교육서비스	223,578	200,343	175,204	-12.5
광업	2,647	27,408	25,231	-7.9
사업시설관리	150,309	604,573	558,587	-7.6
개인서비스	375,707	304,197	283,128	-6.9
제조업	576,574	7,129,693	6,978,012	-2.1
운수창고	614,193	1,054,305	1,033,815	-1.9
보건·사회복지	77,731	682,948	671,326	-1.7
도소매	1,661,902	8,950,739	8,842,894	-1.2
건설업	484,270	3,034,103	2,998,306	-1.2
수도·하수·폐기물	11,294	184,138	186,041	1.0
농림어업	88,446	230,734	243,697	5.6
전문·과학·기술	222,078	792,138	847,183	6.9
정보통신	125,138	634,250	682,195	7.6
금융보험	53,380	248,450	283,365	14.1
전기·가스·증기	94,188	42,735	50,268	17.6
부동산	1,167,258	926,875	1,135,949	22.6
전체	6,890,203	26,537,548	26,261,098	-1.0

- 기업규모별로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기업규모에서 종사자수가 감소(소상공인 -1.8%, 소기업 -8.7%, 중기업 -3.5%)하였으며 특히 소기업의 감소율이 큼
- 종사자수 감소율(-3.9%)은 매출액 감소율(-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매출액보다 종사자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임

<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

(단위: 개, 명, %)

2019년 존재기업		종사자수		
기업규모	기업수	2019년	2020년	증감
전체	6,898,958	21,254,650	20,523,266	-3.4
소상공인	6,445,316	9,223,529	9,058,076	-1.8
소기업	344,611	4,294,995	3,919,206	-8.7
중기업	100,276	3,755,385	3,622,445	-3.5
중소기업	6,890,203	3,980,741	3,923,539	-3.9
대기업	8,755	17,273,909	16,599,727	-1.4

※ 본 연구노트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데이터경제 측정기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초연구」를 토대로 작성

변준석, 통계개발원 사무관

- 데이터경제(datanomics)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화
- 데이터경제 관련 단어 및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문헌 워드 클라우드 및 상위 출현 20개 단어 >



상위 20개 단어			
1	데이터	11	분석
2	기술	12	생산
3	산업	13	정책
4	서비스	14	스마트
5	디지털	15	분야
6	기업	16	제공
7	활용	17	정부
8	정보	18	개발
9	경제	19	기반
10	혁신	20	산업혁명

< 해외문헌 워드 클라우드 및 상위 출현 20개 단어 >



상위 20개 단어			
1	data	11	internet
2	digital	12	business
3	services	13	products
4	economy	14	goods
5	ict	15	based
6	countries	16	economic
7	value	17	platforms
8	use	18	access
9	information	19	growth
10	new	20	trade

- 데이터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OECD는 G20에 권고한 유연한(계층적) 접근방식에 따라 개념적 데이터경제 측정 프레임워크(안)를 다음과 같이 제시

< 개념적 데이터경제 측정 프레임워크 >

거버넌스		
데이터경제	핵심	데이터 처리 · 관리 · 판매 · 서비스에 직접 관여
	협업	데이터 활용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광의	데이터 활용으로 의미있게 부가가치가 증가되는 경제활동
데이터 단순 활용		데이터 활용 일상화
데이터 활용 일상화		데이터 활용 지능화
디지털화 (digitization)		디지털 일상화 (digitalization)
디지털 일상화 (digitaliz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 데이터경제는 데이터 활용 상태에 따라 세 가지(핵심, 협업, 광의)로 구분
- 디지털 기술 활용단계도 세 단계로 구분되며,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일상화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디지털전환은 구독경제 또는 소비자직접판매(D2C)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
-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개념별 구체적 측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능동적인 데이터 활용이 요구됨